

2023-1학기 학습성공스토리 공모전[에세이]

※ 휴면명조 11p, 줄 간격 160%, 전체 2페이지 이상 (2,500자 내외)

인적 사항				
소속		학번		비고 외국인, 편입생, 만학도, 장애학생 등 경우만 작성
이름		연락처	010	

제목	방향이 바뀌니 가려진 것이 보인다: 플립드 러닝 수업을 듣고			
교과목	영어강독		담당 교수명	최영주 교수
구분	전공			
<p>처음 수업을 듣기 위해 강의실에 갔을 때는 걱정부터 앞섰다. 생각보다 학생 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1학년 위주의 과목이 아닌데 신청해도 괜찮은 걸까, 하는 의구심이 있던 터에 “제대로 된 영어맛을 보려면 영어강독이 낫지 않겠나.”하는 어머니 조언을 듣고 막연히 신청한 수업인지라, 걱정이 많은 내 머릿속에서는 ‘내용이 어려워서 인기가 없나?’, ‘점수를 잘 안 주는 건 아닐까?’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다.</p> <p>아니나 다를까 본격적인 강의 시작과 함께 걱정은 후회로 바뀌었다. 모든 과제를 팀이 함께 의논해 해결해야 하는 시스템이었던 것이다. 중·고등학교 때도 모둠수업이 종종 있기는 했지만 같은 학년으로 이루어진 수업이었기에 부담 없이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그런데 2-3학년이 대다수인 수업에서 이제 막 입학한 새내기인 나는 선배들의 눈치만 보며 쭈뼛거리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팀원들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뿐이었다. 다행히 팀 내에 나와 같은 1학년이 한 명 더 있었고, 선배들이 따뜻하게 해주었기에 점차 어렵지 않게 수업에 녹아들 수 있었다.</p> <p>하지만 최영주 교수님의 교수 방식은 나에게 무척이나 낯설었다. 교수님이 사전에 미리 녹화해둔 온라인 강의를 듣고 오면, 수업시간에 그와 관련된 과제를 내주시고, 현장에서 팀원들이 함께 온라인 강의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의논해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 때까지 나에게 익숙한 방식은 수업시간에 직접 수업을 듣고 집에서 따로 과제를 하는 것이었는데 정반대의 방식이라 당황스러웠다. 수업시간에 교수님은 이러한 방식을 ‘플립드러닝’이라고 부르다고 설명해주셨다. 단어의 뜻이 궁금해 찾아보니 [‘뒤집다’라는 사전적 의미에서 유래하여 수업순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었다. 즉 ‘가르치는 사람 중심의 일방적인 강의법이 아니라 배우는 학생 스스로 공부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p> <p>처음 교수님이 지시하신 방식대로 온라인 수업을 들었을 때는 직접적인 소통이 어려운데다가 매체를 이용한 수업방식이라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플립드러닝’ 방식이 장점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녹화 수업이라서 어려운 내용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었고, 여러 번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확실해 잡아낼 수 있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실제 수업에서 교수님께 물어보면 되었다. 물론 팀원들과 과제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많은 의문이 해결되었고, 교수님이 의도하신 ‘플립드러닝’의 효과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p> <p>또한 최영주 교수님의 수업은 방식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타 강의와 차이점이 많았다. 과제는 강의 자료를 보거나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알게 되는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사고를 요하는 것들이었고 해결하는 게 꽤나 어려웠다. 교수님은 인터넷 강의에서 배운 이론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라고</p>				

하시거나 실험을 디자인하라고 하셨다. 즉, 우리가 직접 사고를 해야 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과제는 수업시간에 배운 'Cups&Bowls' 이라는 실험을 기반으로 하여 유사한 실험을 직접 디자인하는 것이었다. Cups&Bowls 실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높이와 너비가 각각 다른 용기들을 놓고 사람들에게 컵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다만 이 용기들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 용기들에 밥과 같은 음식을 넣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본다. 실험의 결과는 정말 놀라웠다. 컵이라고 인식되었던 용기들이 음식을 넣자 그릇이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즉 이 실험은 문맥과 상황이 사람들의 사고와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는 실험이었다. 우리 팀은 채소와 과일에 대한 실험을 디자인했다. 그에 대한 결과로 과일도 인식되었던 것들도 '샐러드에 들어갔다'는 상황을 만들면 채소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했다. 적절한 주제였기에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

게다가 최영주 교수님은 시험에서도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묻는 문제들을 출제하셨다. 이러한 시험문제를 접한 나는 과거에 봤던 어떤 시험보다도 신선하다고 느꼈다. 주입식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암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도록 출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간고사를 치루기까지는 이러한 방식으로 출제 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시험문제를 접했을 때는 당황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점수가 나뉘었던 건 아니지만 만족하기에는 부족했다. 출제 된 문제들을 꼼꼼이 생각해 보면서, 다양한 시험방식에 따른 각기 다른 공부법이 있으며 내가 주로 사용하는 이해 없이 외우기만 하는 식의 공부법은 영어강독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부법을 달리 해야 했다. 우선은 어려운 설명은 필기를 하고 중요한 용어들은 표시를 했다. 그리고 여러 번 읽어보며 제대로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서 다시 머릿속에 되새기는 등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익히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문제를 깊이 있게 그리고 다각적인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기말고사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최영주 교수님의 수업은 과목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는데 있어서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처음에는 걱정했고, 다음에는 후회했고, 그 다음에는 가장 좋았던 과목이 되었으니 말이다. 나는 수업을 통해 대학생으로서 깊이 사유하고 사고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나와 다른 연령의 팀원들과 협업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내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익숙해졌으니 나에게서는 참으로 고마운 수업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내가 수강한 최영주 교수님의 과목이 '영어강독'이라는 것이다. 나는 영어를 그다지 잘하지 못하는 새내기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지문의 흥미로운 내용과 협업과정에서의 재미에 빠져 영어 수업이라는 점이 크게 인식 되지 않았던 것이다. 강의 자료가 내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언어학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여러 가지 이론이나, 원리, 언어의 발전에 대한 용어들도 많이 포함되어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는데도 말이다. 강의가 끝날 즈음엔 내 사고력과 더불어 영어 실력도 향상되었다.

내 경험을 통해 바라건대 더 많은 학생들이 최영주 교수님의 '영어강독' 을 수강하기 바란다. 영어 실력도 향상 될 뿐더러, 다양한 수업방식도 경험하고, 사고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는 수업을 따라가기에 조금은 벅차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흥미로운 형식이나 내용에 빠져있다 보면 금방 적응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수업을 통해 배운 많은 지식들이 좋은 양분이 되어 앞으로의 삶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당선작 및 응모작의 저작권 등 권한은 본교 CTL로 귀속되며, 제2차 저작물로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 및 학내 홍보물에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해당란에)

※ 비동의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2023학년도 1학기 학습성공스토리 공모전 에세이 부문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3년 7 월 10 일

제출자:

조선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귀중